

마사회, 서울 통합경주 무산 손해배상 소송 검토

산지 통합경주 논란, 법정공방 조짐

마사회 "방직 거스르는 조직적 편성방해" 마주협회 "적법한 등록경주 일방적 취소" 부경서는 외산마 vs 국산마 첫 대결 시행

'산지 통합경주' 시행을 둘러싼 한국마사회와 서울마주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예정된 경마 경주가 취소되는 파행운영에 이어 법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한국마사회는 7일(토), 8일(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산마와 외산마의 통합 경주 3개를 1월31일 전격 취소했다. 앞서 경주마 사전 출전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이들 경주에서 외산마와 국산마가 분리 신청이 이루어지 데 따른 조치다. 비대위는 "국산

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를 구분해 출전 시키는 등 마주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분리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마사회는 마주들에게 재등록 및 추가등록을 요청했지만, 호응이 없자 결국 경주 취소를 결정했다. 마사회는 "한국경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경마혁신안의 통합편성 방침을 거스르는 조직적인 편성방해가 의심됐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예정됐던 총 23개 경주 중 3개 경주가 취소돼 20개 경주만 열린다. 마사회는 서울 마주들을 상대로 경주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마주들 역시 경주 취소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비대위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마사회가 마주 개인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출전 등록한 경주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마사회의 출전등록 취소결정은 개인마주제 전환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부적절한 조치로서 마사회가 경마시행체라는 직권을 남용한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출전 등록을 신청한 마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마계 내용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에 경마 전문가들은 "전자카드 도입 등 힘을 합쳐 막아야 할 경마계 현안이 쌓여있는데, 양측이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서울 갈등 속 부경에선 첫 통합경주 시행

시행체와 마주의 갈등으로 경주가 취소된 서울과 달리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는 8일 정상적으로 산지 통합경주(6경주)가 열린다. 경마혁신안이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1등급 경주에서 외산마와 국산마가 함께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마사회와 부경마주협회는 1월 27일 경마혁신안의 정상시행을 합의했다.

이번 경주의 관심포인트는 최강 국산마 '경부대로'가 외산마들을 꺾고 우승할 수 있을지 여부다. '경부대로'는 지난해 대동맹배와 그랑프리 대상경주를 석권했다. 특히 그랑프리는 국산·외산 구분 없이 팬들의 투표로 출전이 결정되는 한국경마 최고권위의 대회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경마 역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소비자인 경마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번 산지통합 첫 경주는 한국경마 재도약의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1월15일 산지 통합 경주와 경마 국제표준 경주마 능력지수(레이팅)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마혁신안을 발표했다. 국산 경주마의 상급 수득 비율을 70%로 유지하고, 말산업 발전을 위해 4년간 733억원의 투자 계획도 밝혔다. 일부 마주와 유관단체는 "국내 축산농가가 몰락한다"며 반발했다. 김재학 기자 ajapo@donga.com 트위터 @ajapo

석호필의 부산경마 풀어쓰기 (6일)

7경주 상승세 탄 ⑤신천여망 촉마감

●2경주 1200m= 기록마 점전에 신에마가 가세한 약혼전 편성이다. ①창동에이스는 약편성에 호응 좋은 조창욱 기수가 재기승해, 원게이트 이점안고 선입전제 나선다면 입상 한 자리 기대할만 하다. 후착은 데뷔전이지만 주스에서 앞과 뒤 고른 걸음 보여준 ⑥베리베리, 직전 경주 입상으로 상승세 타고있는 ②더큰놈, 뒷심 좋아 거리 늘려 도전하는 ③더스타즈를 노리는 경주. 추천마권: ①창동에이스-⑥베리베리 ②더큰놈 ③더스타즈

●7경주 1600m= 능력촉마가 없는 현군 인기마들간의 접전편성이다. 직전 경주 동거리에서 여유있게 승리해 상승세 타고있는 ⑤신천여망이 촉마감이다. 후착은 인게이트에 감망이점 돋보이는 ②등불, 원게이트에 뒷심 좋은 걸음 보여준 ①골드라인, 약편성 만나 유행명 기수 재기승해 의지보이는 ⑦천상의질주를 주목해야 한다. 추천마권: ⑤신천여망-②등불 ①골드라인 ⑦천상의질주 경마문화 전문위원 ARS 060-701-7013

편집 | 김재학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

외국인 마주 1호 달라오 씨 "부경경마 역동성 끌렸다"

방산기업 'L-3 커뮤니케이션' 한국지사장 1981년부터 주한미군 장교로 한국서 생활 한국경주마로 벨몬트 스테이크스 출전 꿈

한국 경마 사상 첫 외국인 마주가 탄생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1일 열린 2015년 신규 마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10명의 신규 마주 가운데 미국인 조셉 달라오(55)씨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1000여 명의 마주 중 유일한 외국인이다.

국방 관련 전자전자 제품과 선박 자동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 방산기업 'L-3 커뮤니케이션'의 한국 지사장인 달라오씨는 전문 경영인이자 경마 애호가다. 1981년 주한미군 장교로 한국생활을 시작한 그는 연세대학교에서 국제관련 석·박사 학위를 받고 2007년부터 세계 방산 부문 3위 기업인 L-3 커뮤니케이션에서 한국 관련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1호 외국인 마주가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뛰어난 경주마를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경매대회에서 성과를 거두야 하는 마주는 기업인과 유사한 점이 많다. 경영자로서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뛰어난 경주마를 소유하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꿈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3대 경매대회 중 하나인 벨몬트 스테이크스가 열리는 벨몬트 파크 인근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말에 대한 친근감과 애정을 갖게 됐다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달라오씨가 서울이 아닌 부경 마주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부경의 역동성에 끌렸다. 넘치는 에너지와 스피드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봤던 경마장의 모습 그대로"라며 "경마용어가 대부분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한국이라 부경에서 유일한 외국인 조교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끌렸"고 말했다. 그는 "제 2의 고향인 한국의 경주마로 고향 벨몬트 스테이크스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다. 한국경마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



한국경마 1호 외국인 마주 조셉 달라오씨(왼쪽)가 1일 부경 신규마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직후 아내 신영숙씨와 함께 마방을 찾았다. 아내 신씨는 달라오씨의 통역을 하던 부부의 인연을 맺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지아 스피드는 어린 시절 고향에서 봤던 경마장의 모습 그대로"라며 "경마용어가 대부분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한국이라 부경에서 유일한 외국인 조교사가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끌렸"고 말했다. 그는 "제 2의 고향인 한국의 경주마로 고향 벨몬트 스테이크스에 출전하는 것이 꿈이다. 한국경마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학 기자

금요경륜 출마표 | 6일

번	번호	기수	이름	성별	종류	기수	조교사	승선	훈련	평	석	유
광명경륜												
제7경주 15:34												
1	전창훈	13	32	32	0	0	0	90.16	양승	△	△	△
2	홍민호	4	45	32	0	0	33	67	93.73	양승	△	△
3	김기범	19	26	33	33	33	100	91.40	양승	△	△	△
4	민상호	6	40	32	0	0	0	89.43	양승	△	△	△
5	구동훈	12	36	32	0	0	0	33	58.28	양승	△	△
6	조용현	16	30	32	0	0	0	33	34.16	양승	△	△
7	이규범	13	34	32	0	0	0	56	78	97.61	양승	△
제8경주 15:57												
1	이현성	6	40	38	6	17	33	88.40	양승	△	△	△
2	김종현	20	27	32	67	1	0	100	85.69	양승	△	△
3	이민호	5	43	32	0	0	33	34.60	양승	△	△	△
4	이주호	16	30	32	0	0	0	88.71	양승	△	△	△
5	권영민	9	36	32	0	0	0	33	92.51	양승	△	△
6	김유승	11	32	32	33	1	0	100	76.75	양승	△	△
7	양승현	10	34	32	0	0	0	33	92.00	양승	△	△
제9경주 16:20												
1	김성근	12	35	32	33	33	67	96.93	양승	△	△	△
2	양명준	17	32	33	0	0	0	87.88	양승	△	△	△
3	고병수	8	36	32	67	67	67	95.99	양승	△	△	△
4	장동진	10	36	33	0	0	0	88.92	양승	△	△	△
5	박종현	6	47	33	4	21	30	88.53	양승	△	△	△
6	박지영	20	29	32	00	1	0	100	84.78	양승	△	△
6	최승호	10	35	32	0	0	0	90.86	양승	△	△	△
7	오영환	17	30	32	67	1	0	100	88.20	양승	△	△
제10경주 16:45												
1	남용현	17	31	32	17	33	33	92.92	양승	△	△	△
2	양기범	20	25	32	33	67	67	90.91	양승	△	△	△
3	정현호	14	32	37	40	60	60	84.79	양승	△	△	△
4	하근영	19	33	32	7	30	58	93.83	양승	△	△	△
5	이성광	10	36	32	33	67	67	97.77	양승	△	△	△
6	박영성	6	44	32	0	0	0	87.65	양승	△	△	△
7	손주영	20	30	32	0	0	0	88.04	양승	△	△	△
제11경주 17:10												
1	양희현	16	33	33	17	33	50	98.88	양승	△	△	△
2	류민준	15	30	32	33	33	67	98.97	양승	△	△	△
3	홍민호	17	29	32	33	83	83	101.47	양승	△	△	△
4	장보루	1	41	33	17	17	17	94.15	양승	△	△	△
5	김주호	16	28	32	0	0	0	88.49	양승	△	△	△
6	민지현	17	32	32	33	83	83	92.92	양승	△	△	△
7	정지현	12	33	33	0	0	0	85.71	양승	△	△	△
제12경주 17:40												
1	박민준	10	38	32	67	67	67	96.63	양승	△	△	△
2	김종현	19	25	32	0	0	0	80.20	양승	△	△	△
3	신현호	18	30	32	0	0	0	83.55	양승	△	△	△
4	조승호	14	31	32	0	0	0	88.52	양승	△	△	△
5	지성현	8	40	32	67	67	67	100.50	양승	△	△	△
6	송희현	14	34	32	0	0	0	86.09	양승	△	△	△
7	최종현	20	24	33	0	0	0	87.84	양승	△	△	△
부산경마												
제1경주 (1000M) 9:06 별정 일반(일) 발주:11:40												
1	백현준	5	53	경윤	김남준	추입	보통	◎	◎	◎	◎	◎
2	소래	수	55	노주무	유승현	선입	양호	◎	△	△	△	△
3	파워볼포스	수	55	김태경	장세현	선입	양호	◎	△	△	△	△
4	월드	암	53	김용근	민정기	선입	보통	◎	△	△	△	△
5	재용원행	암	53	김어수	김형권	선행	양호	◎	△	△	△	△
6	연승불패	암	53	박금만	유병복	선입	양호	◎	△	△	△	△
7	올트라비	암	53	문종현	구영준	선행	양호	◎	△	△	△	△
8	영광의바다	암	53	김홍일	김병학	추입	양호	◎	△	△	△	△
9	레이디앨리	암	53	최시대	백광열	선행	양호	◎	△	△	△	△
10	인더백	수	55	다나카	김영관	선입	양호	◎	△	△	△	△
제2경주 (1200M) 9:36 별정 일반(일) 발주:12:05												
1	창동에이스	암	53	조창욱	오문식	선입	양호	◎	△	△	△	△
2	더큰놈	수	55	후지미	김남준	선입	양호	◎	△	△	△	△
3	더스타즈	암	53	오경환	이정표	추입	양호	◎	△	△	△	△
4	대보름	암	53	구민성	김창욱	추입	양호	◎	△	△	△	△
5	경호이언	암	53	정동철	최기홍	추입	양호	◎	△	△	△	△
6	베리베리	거	52	최상현	김영관	선행	보통	◎	△	△	△	△
7	아이언스테이	암	53	박금만	유병복	선입	보통	◎	△	△	△	△
8	청송공주	암	53	최시대	백광열	선입	양호	◎	△	△	△	△
9	기억한일주	수	55	조성근	양귀선	선행	양호	◎	△	△	△	△
제3경주 (1200M) 9:46 별정 일반(일) 발주:12:45												
1	이기범	거	55	구민성	이정표	추입	양호	◎	△	△	△	△
2	마루	암	55	오아마	조용배	추입	양호	◎	△	△	△	△
3	비버리	암	54	박금만	유승현	추입	보통	◎	△	△	△	△
4	이주현	암	54	노주무	김병학	선행	양호	◎	△	△	△	△
5	대성원	암	55	조창욱	유주현	선입	보통	◎	△	△	△	△
6	대지이질주	암	54	김용근	장세현	선입	양호	◎	△	△	△	△
7	미레스타	암	55	김어수	이정표	선행	양호	◎	△	△	△	△
제4경주 (1300M) 9:56 별정 일반(일) 발주:13:25												
1	일파성	수	55	김동영	방동석	선입	보통	◎	△	△	△	△
2	내배대호	거	56	노주무	이정표	자유	양호	◎	△	△	△	△
3	폭풍의눈	수	56	오아마	김재성	선행	보통	◎	△	△	△	△
4	부경드림	거	56	조성근	한상복	추입	양호	◎	△	△	△	△
5	레이스잡	암	54	박재호	최기홍	선입	양호	◎	△	△	△	△
6	드림캐슬	수	55	다나카	방동석	추입	양호	◎	△	△	△	△
7	런파이커	수	53.5	오경환	임동창	추입	양호	◎	△	△	△	△
8	서든일렉트	수	56	문종현	최기홍	선행	양호	◎	△	△	△	△
9	멘델스링	거	56	김용근	이상영	추입	양호	◎	△	△	△	△
제5경주 (1400M) 9:55 별정 일반(일) 발주:14:15												
1	리터트리	수	52	오아마	유주현	선입	양호	◎	△	△	△	△
2	씨에스타	수	55	오경환	김병은	선입	양호	◎	△	△	△	△
3	넬슨	암	54.5	노주무	장세현	선행	양호	◎	△	△	△	△
4	영광원행	암	51	최상현	양귀선	선입	양호	◎	△	△	△	△
5	코벨리아	거	54.5	후지미	김남준	추입	양호	◎	△	△	△	△
6	코지파크	수	53	조성근	권승주	선입	양호	◎	△	△	△	△
7	삼일스타	수	55	최시대	백광열	자유	양호	◎	△	△	△	△
8	핀도라	암	52.5	송경윤	김재성	선행	보통	◎	△	△	△	△
9	미스터켈리	수	54	김용근	안우성	선입	양호	◎	△	△	△	△
10	한마강호	수	53	박성광	이상영	추입	양호	◎	△	△	△	△
11	챔피언이	암	54	유병현	임동창	추입	보통	◎	△	△		